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1년 11월 21일

제1870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 37〉



〈성스러운 얼굴〉, 조르주 루오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나해)

**제 1 독 서** 다니 7,13-14 |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다.

**화 답 송** 시편 93(92)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제 2 독 서** 묵시 1,5ㄱ-8 |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께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 음** 요한 18,33ㄴ-37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sup>33</sup>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물었다.

<sup>34</sup>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sup>35</sup>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sup>36</sup>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여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sup>37</sup>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올해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 복음 묵상

성당에 들어서서 머리와 가슴, 어깨에 엄숙히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와 제대를 바라보며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염원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몸과 마음에 품고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하고 심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갔다고 여기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행동하게 하고는 자신은 고귀한 척, 정당한 척합니다. ‘군사들처럼’ 자기보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빈정거립니다. ‘백성들처럼’ 사실과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낙인을 찍어 소문을 만들며 재미 삼아 험담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처럼’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그의 잘못만을 탓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판합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나보다 잘못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이유로, 내 것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아 빈정거리며 조롱하고 못 박아 죽입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는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신 분께서 바로 우리의 임금이심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빌라도처럼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을 임금으로 여기고 충실히 섬기기를 약속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사셨던 그 십자가의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날입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닌 십자가의 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종훈 토마스 신부)

## 제36차 세계 젊은이의 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네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 (사도 26,16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없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힘과 열의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오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담긴 사도행전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네가 본 것의 증인으로 선택한다’ (사도 26,16 참조).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어느 날, 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당신께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음을 사울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이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이렇게  
여쭙어봅니다.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26,15)  
이는 결정적인 질문이고, 머지않아 우리 모두 여쭙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스스로 예수님께 말을 걸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오로 성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 전체에서 바오로는 단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26,15).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에는 선으로, 증오에는 사랑으로 답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불의와 폭력과 조롱과 박해를 견디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양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와 동떨어진 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완전히 적대적이며 당신을 박해하던 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놓치는 이가 아무도 없음을 압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자 사울은 ‘땅에 엎어졌고’ 눈이 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진리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확신과 자만이 사라지면서 그는 한순간에 길을 잃고 나약해진 ‘작은’ 이가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울은 눈먼 뒤에 자신의 기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그에게 오직 분명한 것은 그가 보았던 빛과 들었던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눈이 멀어야만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겪은 자신의 강렬한 체험 이후, ‘작다’는 의미를 지닌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오로의 회심은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여정을 계속 이어갔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새로운 눈으로, 곧 더는 박해자나 집행자가 아니라 제자이자 증인으로서는 실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오로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셨을 때, 주님께서 바오로의 성격이나 뜨거운 열정을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달자로 만드시어 그가 받은 은총들이 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로 얻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바오로에게 하였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일어나라! 기죽어 있거나 너 자신 안에 갇혀있지 마라.  
사명이 너를 기다린다!”**

주님과 교회와 교황이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오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만날 다른 모든 젊은이 앞에서 증인이 되도록 임명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 1 2차 현금

- 이번 주일은 인류 발전 캠페인(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B-3,4)

## 3 안나회 월례회의 및 특별 강의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 주제 : 심경색이란 무엇인가?
- 강사 : Dr. 박찬중(토마스) 심장내과 전문의

## 4 K o C 월례회의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B-1)

## 5 요한회 2021년 총회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B-2)

## 6 ME 2021년 총회

- 일시 : 11월 21일(일) 오전 11:30(하상관 #110)

## 7 2022년 바오로 딸 성경학교 입학 설명회

- 일시 : 11월 28일(일) 오후 12시(A-1,2)
- 문의 : 교육부 (571) 275-0691

## 8 2022년 바오로 딸 성경학교 등록(1,2,3학년)

- 기간 : 12월 1일 - 1월 15일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교육부 (571) 275-0691

## 9 하상 성인학교 종강

- 일시 : 12월 3일(금) 오전 11:50(하상관 #110)
- 수강생과 강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야나 교장 (703) 217-2775

## 10 2021년 세례성사 안내

- 일시 : 12월 5일(일) 10시 미사 중
- 세례자 종합교리 : 12월 4일(토) 오후 6:30 (친교실)
- 참고 및 면담 : 오후 7:30
- 전례연습 : 오후 8:45
- 대부, 대모님들은 종합교리와 면담시 함께 해 주세요.

## 11 2022년도 매일미사책 신청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미사책 1권 : \$ 7 / 1년 : \$75
- 대자 1권 : \$14 / 1년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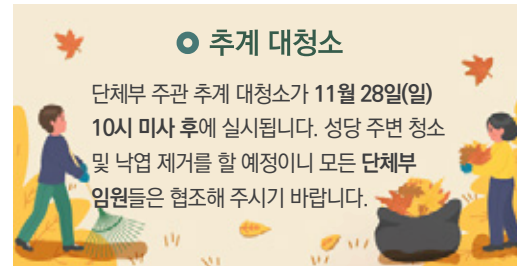
## 12 성탄 판공성사 안내

- 본당 판공성사 : 12월 7일(화) 오후 3시, 오후 7:30
- 외부에서 신부님을 초빙하여 성사를 드립니다.
- 각 가정으로 발송한 판공성사표와 2022년 교무금 약정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CYO WorkCamp

알링턴 교구에서 주최하는 WorkCamp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주일학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 문의: 구아름 (703) 599-8869
- 권용우 (571) 244-0333
- 신청 마감 : 12월 5일



### ○ 추계 대청소

단체부 주관 추계 대청소가 11월 28일(일) 10시 미사 후에 실시됩니다. 성당 주변 청소 및 낙엽 제거를 할 예정이니 모든 단체부 임원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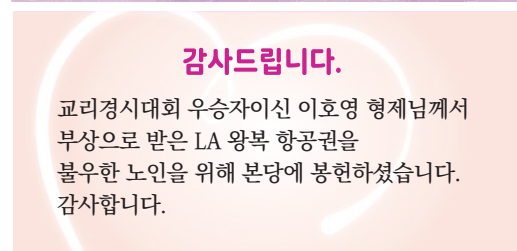
###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대림특강

#### 대림특강 1

- 12월 5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평화방송 미주지사 사장 / 뉴욕)
- 주제 : “하느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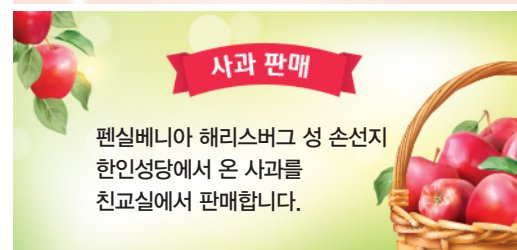
#### 대림특강 2

- 12월 12일(일) 오후 1시-3시 (친교실)
- 박성호 다미아노 신부님 (보스턴컬리지 철학박사과정 /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 주제 :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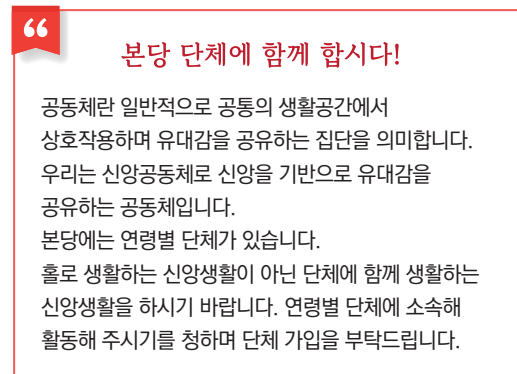
### 감사드립니다.

교리경시대회 우승자이신 이호영 형제님께서 부상으로 받은 LA 왕복 항공권을 불우한 노인을 위해 본당에 봉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과 판매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 성 손선지 한인성당에서 온 사과를 친교실에서 판매합니다.



### 본당 단체에 함께 합시다!

공동체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공동체로 신앙을 기반으로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본당에는 연령별 단체가 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단체에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단체에 소속해 활동해 주시기를 청하며 단체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1974-2024)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회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home/>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021년 11월 14일(연중 제33주일)

|              |              |
|--------------|--------------|
| 주일현금         | \$ 7,016.00  |
| 교무금          | \$ 13,940.00 |
| 교무금(신용카드)    | \$ 6,850.00  |
| 감사현금 & 성소후원회 | \$ 450.00    |
| 온라인 봉헌       | \$ 5,510.00  |
| 2차 현금        | \$ 4,132.00  |
| 합계           | \$ 37,898.00 |

♥ 주일현금 및 2차 현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6시 뉴스 시작 1분 전에 김태진 신부님의 1분 묵상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11월 24일(수) 오전 6:15-6:45  
11월 27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주일미사 강론
- CBCK 미디어교리 - “가톨릭교회의 장례와 제례”
- 본당 공지사항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25일(목) 오후 5:00-6:00  
11월 26일(금) 저녁 8:00-9:00  
11월 28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미사 강론
2. 특집 : 팬데믹 시대, 함께 희망을 찾다 - “세계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선교사들”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              |                                                                                                                                         |
|--------------|-----------------------------------------------------------------------------------------------------------------------------------------|
| 주일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
|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 7:30 PM                                                                                                                               |
| 월, 목, 토      | 화, 금, 수                                                                                                                                 |
| • 6:00 AM    | • 7:30 PM • 11:00 AM                                                                                                                    |